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 사례

강효정

2017

석 사 학 위 논 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 사례

- 제주대학교 수필창작교실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Expansive Learning of the Participants
in Essay-writing Program
at Je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강 효 정

2017년 2월

석사학위논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 사례

- 제주대학교 수필창작교실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Expansive Learning of the Participants
in Essay-writing Program
at Je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강 효 정

2017년 2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 사례
- 제주대학교 수필창작교실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Expansive Learning of the Participants
in Essay-writing Program
at Je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강 효 정

2016년 11월

강 효 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12월

목 차

국문 초록	iv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1. 대학부설평생교육원	5
가. 대학평생교육의 흐름	5
나. 대학평부설생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7
2. 확장학습이론	10
가. 비고츠키의 제1세대 이론	10
나. 레온티브의 제2세대 이론	12
다. 엥게스트롬의 제3세대 이론	14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8
가. 성인학습자	19
나. 교수자	20
2. 자료수집	21
가.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21
나. 문서 자료 수집	23
3. 자료 분석	23

IV.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	
1. 프로그램의 맥락 :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수필창작교실	25
2. 학습자의 확장학습	27
가.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 : ‘나 그리고 우리 수필 안으로’	28
나. 활동체계 간 모순에 따른 확장 : ‘우주의 하나뿐인 우리’ ...	33
3. 교수자의 확장학습	38
가. 개인의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 : ‘사제(師弟)에서 도반(道伴)으로 나아가기’	38
나. 개인의 활동체계 간 모순에 따른 확장 : ‘도반(道伴)과 함께 창안한 시수필(詩隨筆)’	40
V. 논의 및 결론	
가. 논의	44
나. 결론	48
참고 문헌	50
ABSTRACT	54

표 목 차

〈표 III-1〉 연구 참여자 정보	18
〈표 III-2〉 면담 질문지 구성	22

그 립 목 차

[그림 II-1] 제1세대의 기본적인 활동체계	12
[그림 II-2] 제2세대활동체계의 확장 모형	14
[그림 II-3] 활동체계 간의 확장 모형	15
[그림 IV-1] 수필창작교실의 활동체계	26
[그림 IV-2] 학습자 C의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	29
[그림 IV-3] 수필창작교실의 활동체계 내의 모순	31
[그림 IV-4] 학습자 A의 활동체계의 확장	35
[그림 IV-5] 교수자 A의 활동체계 내의 모순	40
[그림 IV-6] 교수자 A의 활동체계의 확장	42

국 문 초 록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 사례 - 제주대학교 수필창작교실을 중심으로 -

강 효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평생학습은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학습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확장학습이론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활동체계 요소들 간 혹은 활동체계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발전한다.

본 연구는 확장학습의 관점에서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정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제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수필창작교실의 교수자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학습자들 중 4명을 선정하여 각각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수필창작을 목적으로 수필집, 동영상, 인문학도서 등의 매개물을 이용한다. 이때,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교수자, 학습자, 관리자로 과업을 분담한다. 그들은 규칙을 바탕으로 활동과 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수필창작교실’이라는 하나의 활동체계를 형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활동체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각 구성요소 사이에서 다양한 모순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활동체계의 요소들이 영향을 받아 변화했다. 프로그램의 학습자들은 깊은 자아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작가로 등단하여 활동을 하거나, 자아실현을 통해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학습자들은 교육활동의 참여를 선택하였을 때 계획했던 자신의 목적을 새로운 활동체계를 통해 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체계는 학습자들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유지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를 맺었다. 이 관계는 활동 초기의 목표가 자신의 삶의 변화,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도구에 대한 학습과 같은 목적적이고 개인적인 것에서 벗어났다. 즉, 자신의 발전 또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와의 공존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관계로의 발전을 가져왔다.

교수자의 측면에서 보면, 대학 강단에 오랫동안 서있던 교수자는 성인학습자를 대할 때,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노하우와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해갔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초기 학습자들이 전문성을 쌓아가며 전문수필가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성인학습자를 단순히 제자로,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고 학문을 나누는 동반(道伴)으로 인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는 사범대학 교수로,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교실 교수자로 자신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오는데 ‘시수필’이란 새로운 수필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뚜렷한 교육적 목적을 지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났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학습공간과 틀에 한정하지 않았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학습활동을 일상세계로 확장해 나아갔다. 또한, 일상 안에서의 학습을 외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참여자들 스스로 만들어 가며 모순을 해결하고 성장해 나갔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성인학습이론이었던 자기주도학습, 경험학습, 관점전환 학습 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학습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학습이 지닌 집단적, 공동체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 반면에 이 연구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을 확장학습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학습양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학습자들의 공동체적 학습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을 제공받는 학습자’,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자’의 전통적 모습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와 ‘학습자로부터 배우는 교수자’ 모습을 밝힘으로써, 평생학습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관계를 경험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주요어 : 확장학습,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대학부설평생교육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이후 사회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 개인이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장은 성인학습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 안에서의 신입사원교육, 직무연수 등이 있다. 그 밖의 생활공간에서는 문화센터, 사설학원, 시민단체, 주민센터,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대학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히 설비되어 있고 교육운영에의 행정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대학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갖춘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 대학입학 학령기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로 대학의 구조를 새롭게 재편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새로운 학생 자원인 성인학습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논의(교육부, 2013a)가 제기되는 가운데, 2016년 상반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선정된 일부 대학의 철회로 해당대학은 사업의 진행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들이 진지하게 행하고 있는 학습을 단순히 자격증과 학위취득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만으로 폄하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평생학습은 직업준비와 자격증취득을 위한 직업능력교육, 내·외국인을 위한 기초문해교육, 초·중·고등학력보완을 위한 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으로 6개의 분야로 나누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인문교양교육은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기능이나 유용성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혜와 사유의 능력을 형성

해가는 주체로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에 있다(양은아, 2009). 이와 같은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사유의 방식은 인문학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종합적인 사고의 과정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찰적 물음을 던지며 끊임없이 자기이해의 방식을 변화시키며 성장해 나간다.

한편, 인간의 학습은 인류 문화유산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지식으로서 교과학습과 구체적인 경험과 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이 있다.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접근 방법인 경험학습에서 듀이(Dewey)는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 과정의 지속과 한 개인이 경험이 당시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상황이 학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Dewey, 1983: 13-27, 김지자 외 2001:6에서 재인용).

이와 달리 엥게스트롬(Engeström)은 활동을 이루는 활동체계들의 구성요소로 주체, 객체, 매개체, 규칙, 분업, 공동체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공유되거나 함께 구성된 대상으로 이동한다. 또한 활동체계는 모순에 의한 활동요소들의 변화나 확장과정을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윤창국·박상욱, 2012). 즉, 확장학습은 활동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구성원들의 활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확장학습은 특정 활동을 반복하거나 성찰하는 가운데 어떤 활동체계를 몸에 배이도록 하거나, 혹은 몸에 밴 활동체계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활동체계학습’으로서 일상 안에서 전개된다. 평생교육은 지식학습과 활동체계학습 사이에 가로놓인 간극을 메우고 양자 간 균형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김민호, 2016). 또한, 활동을 교육 참여나 학습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확장적인 모습에 주목할 때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김효경·윤창국,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이론으로 발전된 엥게스트롬의

확장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활동체계의 모순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확장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공동학습이 지속적인 실천과정에서 강화되며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된다고 할 때, 그러한 확장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수필창작교실’ 참여자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평생교육기관 내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반별 소모임, 온라인 카페 활동 외에도 자발적으로 수필세미나, 수필문학기행, 수필문학축제, 백록수필집 창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나타나는 역동성과 실천의 확장성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습의 확장성’을 살펴보는 데에 의미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프로그램 참여자를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학습시간을 공유하는 교수자도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였다.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활동체계가 변화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여자의 활동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나타나는 활동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각기 다른 개인적 맥락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기를 지닌 성인학습자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의미와 확장학습으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주요 활동과 활동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활동체계는 어떻게 확장되며 그 과정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정 한계를 지니고 있어 미리 밝혀 둔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론적 분석의 틀로 제시한 확장학습이론으로는 활동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확장학습이론은 일터 또는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무형식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박상욱, 2009). 그러나 '수필창작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파생되는 모든 활동을 모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실천한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의 발전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고등교육의 전통적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로 평생학습체제에서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평생교육의 이해를 돕는다.

가. 대학평생교육의 흐름

대학평생교육은 ‘대학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교양교육, 직업교육,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서울대학교, 2011).

대학은 학교교육의 최고 정점으로 대학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을 해야 한다면 지식학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구의 여러 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성인 대상으로 고등 수준의 교양교육을 하거나, 노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도모했다(김민호, 2016). 최초의 대학평생교육은 1873년에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이 대학 프로그램을 개방한 것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교육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소수에 의해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고등교육이 지역 평생학습으로 개방되었다. 이후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성인지도학급(tutorial classes)과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교외강좌(extramural courses)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최돈민, 2008). 1907년에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대학의 경계는 주(state)의 경계”라는 ‘위스콘신 아이디어’에서 대학교육의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고(Carstensen, 1990, 최돈민 2008:93 재인용), ‘대학확장부’를 만들어 학교 밖 성인 대상 대학평생교육을 본격화했다(김민호, 2016).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공개강좌에서 대학 평생교육원 그리고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1971년 대구시와 계명대학교에서 실시한 ‘주부대학’을 시작으로 198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대학 평생교육원을 설립했다(곽삼근 외, 2014).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대학 평생교육이 활성화 된 것은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이어서 1983년 9월에 ‘사회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사회교육법 제 24조 제(1)항에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돈민, 2008).

1988년 독학학위제, 1992년 보육교사양성과정, 1997년 대학 평가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평가하게 되었고, 1998년 학점은행제의 실시로 대학 평생교육원은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학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 평생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이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1997년 우수대학 지원을 위한 대학 평가에 다양한 사회교육 운영과 실업자 재취업 교육 운영 항목이 도입된 이후 1년 만에 55개 대학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각 대학들의 이와 같은 운영의 배경에는 대학생 수의 감소라는 원인도 있는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각 대학들의 생존 수단이라는 것이다(설동희, 2014).

이후 2000년대에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기존의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가 확산 시행되었고,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으로 대학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08년도에는 교육부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추진과제로 ‘평생학습 중심 대학’이 기획 실천되어 본격적으로 대학 평생교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2009년도에는 평생교육법의 일부 개정으로 이미 학사학위를 소지한 성인이 제 2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곽삼

근 외, 2014). 정부는 사내기술대학(1996년), 기능대학(1997년),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과 계약학과 도입(2003년), 한국폴리텍대학(2006년), 전공대학(2007년) 등을 통해 지식의 체계적 학습보다는 직업기술의 향상을 도모했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인학습자에게 학사학위의 취득 기회를 제공한 것은 갖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2000년대 이후 80%를 넘어 대학 미진학 성인들의 대학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호, 2016).

그동안 대학 차원의 평생학습은 주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대학교육의 핵심인 학위과정의 본질적인 변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 예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산업체 위탁학과’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학위과정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기회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별도의 과정’으로서만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학평생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제화 과정과 교육환경의 변화로 현재 학교체제의 단순한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평생교육’이란 기존 대학교육이 전통적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애 준비교육을 실시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기관 진입으로 인한 생애 현장교육체제의 구현을 지향하는 제도적 변화이다. 또한, 현 대학교육체제가 성인이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수준의 학습내용, 삶의 주기에 맞는 학습기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탐구 등 ‘학습’에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 변화를 동반하는 개념이다(곽삼근 외, 2014).

나.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역할과 기능

평생교육기관은 정규학교를 제외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초·중·고등교육형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원격/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이 포함된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기관 중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한 유·초·중등 학교부

설,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형태, 평생학습관이 포함된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인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총장·학장의 책임 하에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2013). 각 대학에 따라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사회문화교육원, 정보사회교육원, 산업교육원, 여성사회교육원, 기독교사회교육원, 미술디자인교육원, 어학원, 국제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김애련, 2004).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학습대상인 성인학습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이숙원, 2002), 성인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100세 시대의 적응,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과 직업능력개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곽삼근 외, 2014).

한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이 점차 확산되면서 대학은 일련의 선발과정을 거친 학습자에게만 제공했던 고등교육을 일반인에게도 학사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독학학위제 등)과 비학위과정(인문교양교육, 재직자교육 등)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개방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에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평생교육 실천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실시해 왔다. 특히 대학은 학교를 포함한 평생교육 시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성인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학의 고등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대학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대학은 다양한 맥락을 가진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사회봉사 와 고등교육 기회의 기능을 확대해야한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최돈민, 1999).

첫째, 대학은 사회적 공동체의 한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영국에서의 대학개방은 전도적 성격을 강조 하면서 노동자나 여성과 같은 교육에 있어 소외되었던 집단을 위한 고등교육 확장의 의미가 크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 확장 강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활동 등이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의 좋은 예이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은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들에게 제 2의 보상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외에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학점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의 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학습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2020년 이후 전체 대학의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된 시점에서 대학이 성인들을 위한 계속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 충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NESCO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이념은 모든 교육을 통합하는 상위의 교육개념이자 조직 및 실천원리로 대학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학령기 교육 이후에도 성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유연한 ‘학습-일-여가’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대학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학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도록 연계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이다(김은순, 2011). 또한, 연령, 생애주기별 대학교육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생애 평생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조기퇴직자·고령자에게 전직 및 제2의 인생으로 성장·영위를 지원하여 안락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2013).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대학은 형식교육 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 통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선취업후진학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학부설평생교육원과 단과대학 내 후진학 과정으로 설립되었던 기존의 체제를 통합하여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를 마련하여 대학평생교육이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대학평생교육의 기능

을 확장하는 것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학의 학습자 문제 해결과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학부설평생교육원도 새로운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준비해야 한다(이진희, 2016).

따라서 대학평생교육은 고졸 학력을 가진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학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줄어드는 청년 수요에 대한 조정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기성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학위 대 비학위 과정, 전일제 대 시간제, 초기 대 계속교육 등 다면적인 차원에서 균형 잡힌 총 교육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한승희, 2015).

2. 확장학습이론

엔게스트롬(Engeström)은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에 근거하여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을 이론화하였다. 따라서 확장학습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김경희, 2011).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기호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활동이론은 비고츠키(Vygotsky, 1978)가 제시한 주체, 객체, 매개라는 인간 활동의 기본적인 삼각구조에서 제1세대 이론에서 출발하여, 집단적 활동체계 및 활동구조의 위계화를 모색한 레온티브(Leont'ev)로 대표되는 제2세대 활동이론, 집단적 활동체계 모형 확립과 활동체계의 확장을 정립한 엔게스트롬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의 이론으로 발전해 왔다.

가. 비고츠키의 제1세대 이론

마르크스는 활동(Activity)개념을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설명한 첫 사상가이다. 마르크스는 기계적 물질주의와 관념주의에 대해 비판하였다. 기계적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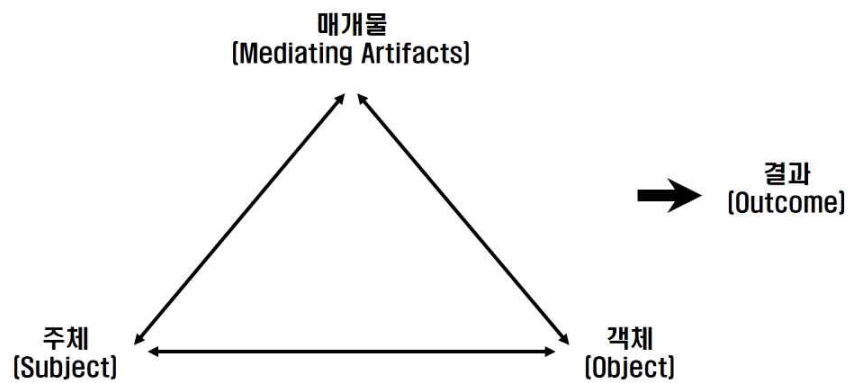
질주의는 인간이 행위자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 관념주의는 인간 행위의 문제를 개인의 사고의 문제로 인식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두 이론의 한계점을 활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고, 개인 주체와 객관적 사회적 상황의 이분법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활동 개념을 통해 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변화는 개인의 주체적 자기 변화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에서부터 던져지는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마르크스가 설명하고자 했던 변화와 관련한 주요 논점은 변화는 일상적인 실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협력적 실천적 비판적 활동”이라는 것이다(김경희, 2011).

마르크스의 노동활동 개념 혹은 사용 가치(use value) 생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레온티브는 마르크스의 노동활동 혹은 사용 가치 생산 개념에 근거하여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동 개념을 구체화 하였다. 레온티브는 상호 의존적으로 매개된 노동 활동의 두 측면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 측면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노동의 두 번째 측면은 노동 활동의 사회적 조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노동은 집단이 협력하여 일하는 활동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노동 활동 개념으로부터 레온티브가 시사 받은 것은 노동활동은 도구에 의해 매개될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개된 활동이라는 것이다(김경희, 2011).

활동이론의 제1세대는 “매개물(mediation)”의 개념을 만든 비고츠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활동은 주체와 객체 관계의 한 단위이며,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물이 존재한다. 매개물은 언어, 기호와 같은 상징도구들(symbolic tools), 망치와 같은 물질도구들(material tools), 그리고 관습과 같은 사회적 참여 양식 등을 말한다. 행위의 주체는 원하는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객체를 다루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매개물이 사용되며, 문화적이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매개물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한다(김경희, 2011). 비고츠키에 의해 발전하게 된 제1세대 활동이론은 주체, 객체, 매개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구조는 다음의 [그림 II-1]과 같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활동을 통해 인간 외부에 있는 자연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

질은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부와 외부 사이를 이동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거나 만들어 노동하는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사용하고 만드는 도구는 물질적 차원의 도구뿐만 아니라 언어나 기호도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역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림 11-1] 제1세대의 기본적인 활동체계

주. 출처 **Learning by expanding** (p. 78) Engeström 저. 1987. Helsinki: Orienta-Konsultit.

이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체계를 정립한 활동이론 제1세대에서 개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문화역사적으로 형성된 매개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카르트식의 개인과 사회구조의 이분법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인간행위의 분석단위가 여전히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매개가 없이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며, 문화적 매개물을 사용하는 개인 행위자가 없다면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다(윤창국·박상옥, 2012). 이러한 한계점은 레온티브(Leont'ev)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론 제2세대에서 극복된다.

나. 레온티브의 제2세대 이론

제2세대 레온티브(Leont'ev)는 원시시대 집단 사냥 사례를 통하여 개인의 행

위와 집단적 활동 간의 핵심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때, 개개인의 행위 목표는 집단적 활동과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즉, 분업과 협동으로 이루어지고 역사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활동 부분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활동체계는 활동(activity), 행위(action), 기능(operation)의 세 단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박상옥,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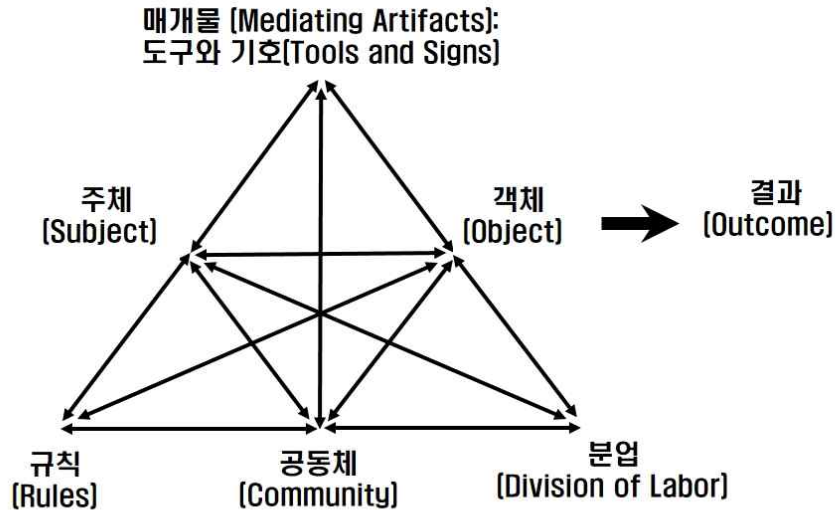
레온티브는 활동과 행위는 일치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였다. 활동이론에서 활동은 목적지향적인 것이다. 이때의 목적은 유·무형의 것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항상 요구되는 욕구가 있다. 예를 들자면 요리라는 활동의 목적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 뒤에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는 욕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은 동기(motive)지향적이고 동기 없는 활동은 없다. 반면에 행위는 목표 지향의 과정들이다. 적당하게 음식 재료를 끊이거나 볶는 것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음식 섭취의 동기에 의한 같은 요리 활동의 다른 목표를 가진 행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Leont'ev, 1972: 23; 윤창국·박상옥, 2012: 123에서 재인용).

기능은 행위가 실현되는 방법이다. 행위는 그것이 실현되는 수단에 의해서 질과 구성요소 특히 실현되는 양상(modes)이 달라진다(박상옥, 2009). 행위는 기능을 통해서 실현되고 기능은 활동의 실제 조건에 의해서 정해진다. 만약 목표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조건이 변하였다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기능 구조는 변할 것이다.

이처럼 활동이론의 제2세대인 레온티브는 제1세대의 한계점이었던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활동체계를 설명했던 이론적 성과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활동체계의 확장이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Engeström, 1996).

엔게스트롬(Engeström)은 비고츠키의 활동체계 모형에서 공동체(community), 규칙(rules), 그리고 분업(division of labor)이라는 세 개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다음의 [그림 II-2]와 같이 확장된 활동체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공동체는 동일한 목적의 관계가 참여를 공유하는 활동 주체의 집합이며, 분업은 서로 협동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 과제 구분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위의 수직적 구분을 뜻하며, 규칙은 활동 주체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

위와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원칙을 말한다(권인택, 2008; 윤창국·박상옥, 2012).



[그림 11-2] 제2세대의 활동체계의 확장 모형(Engeström, 1987; 78)

주. 출처 **Learning by expanding** (p. 78) Engeström 저. 1987. Helsinki: Orienta-Konsult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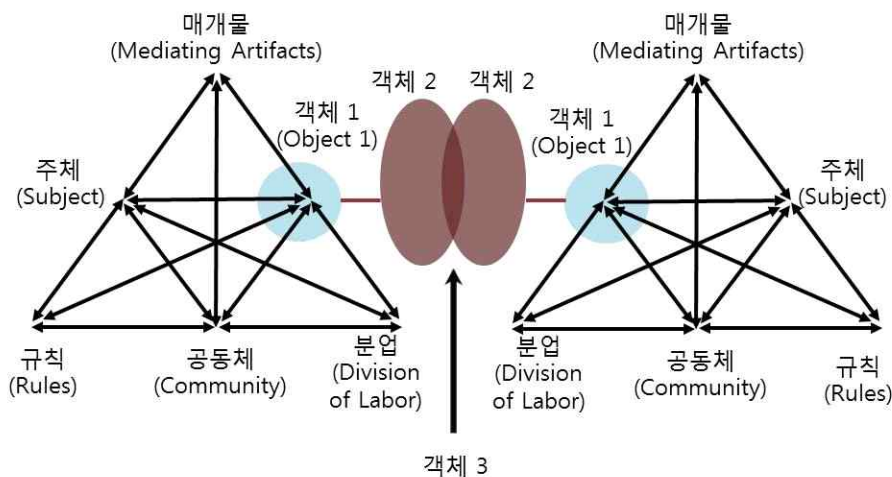
활동이론은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 양자를 매개하는 역사적·문화적 요인으로서의 매개물, 그리고 규칙, 공동체, 분업이라는 공동체적 요소가 인간 활동의 체계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보고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활동체계가 수립, 변화,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

다. 엥게스트롬의 제3세대 확장학습

앞서 살펴본 활동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제1세대 비고츠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를 보완한 제2세대 레온티브는 사회문화적 매개물을 통한 활동의 개념으로 사회적 맥락 안에서 활동의 집단적인 면과 활동의 구조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활동체계의 요소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레온티브는 활동체계와 그 속에 포함된 활동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협력적 관계, 모순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Engeström, 2001; 박상옥, 2009).

엥게스트롬은 [그림 II-3]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활동체계들을 제시함으로써 활동체계에서의 모순과 긴장의 양상을 나타내고, 활동체계가 어떻게 확장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도구를 발전시켰다.



[그림 II-3] 활동체계 간의 확장 모형

주. 출처 **Expansive Learning at work** (p. 136) Engeström 저. 2001.

[그림 II-3]에서 객체는 비성찰적이고 상황적으로 주어지던 단계(객체 1)에서 활동체계에 의해 의미 있게 구성된 단계(객체 2)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주체의 활동 동기 혹은 주체의 객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나타난다. 객체 3은 두 활동체계가 잠재적으로 공유하거나 연합해서 구성한 객체이다. 객체 2에서 객체 3으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주체 간 대화, 주체의 다양한 관점들, 활동체계 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다(Engeström, 2001: 136, 김민호, 2016에서 재인용).

활동체계는 한번 구축되면 고정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 역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활동이론은 활동체계의 역동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요인을 모순(contradiction)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김효경·윤창국, 2014). 즉, 활동체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내재적 모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활동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이 활동체계의 변화와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모순의 극복과정을 통해 활동체계는 확장적 전환(expansive transformation)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Engeström, 2001). 이와 같은 모순은 활동체계 내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 시키지만 결국 활동체계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한다(Engeström, 1987).

엔게스트롬은 활동체계의 다양성과 다층성을 제시하면서, 한 활동 체계에서 다른 활동체계로의 수평적 확장학습과 활동체계 간 모순에 따른 수직적 확장학습을 소개했다. 활동이론을 개별 주체와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전시킨 것이다(윤창국·박상욱, 2012:125).

수평적 확장학습은 경계이동(boundary crossing)과 네트워크 만들기 과정을 동반한다. 경계이동은 “수평적 전문성으로 실천가들이 특정 영역 경계를 넘어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고 하면, 필요한 정보나 도구를 주고받는 것”(Engeström, 1995:33을 김경희 2011:311에서 재인용)이다. 개인의 변화보다는 집단적 차원에서 활동 대상 혹은 객체(object)가 확장되는 데서 학습의 의미를 찾는다.

반면에 수직적 확장학습은 매개물과 객체, 객체와 노동의 분업 사이의 모순 뿐만 아니라 활동체계들 간의 모순을 통한 새로운 활동체계로의 전환에서 나타난다. “문제가 되는 이전 활동의 모순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활동 구조, 즉 새로운 대상 혹은 객체, 도구 등이 포함된 활동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즉, 활동체계 확장 학습이란 “개인적 차원의 일상적 행위와 역사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활동 간의 간격으로 일상적 개인 생활에 잠재된 이중적 구조(double bind)의 집단적으로 해결점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김민호, 2016).

요컨대, 엔게스트롬의 확장학습은 전통적 학습과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문화의 전수나 유지보다 문화의 변형과 창조 과정을 우선시 한다. 둘째, 개개의 단일 역량들에서의 수직적 향상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들이나 표준 역량들 사이의 수평적 이동과 혼합의 과정을 중시한다. 셋째, 경험적 지식이나 개

념의 획득보다는 이론적 지식과 개념의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김민호, 2014).

이와 더불어 확장학습이론의 관점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 학습의 역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이 일터, 가정,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생활세계 내에서 무형식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집단적 활동에의 참여와 활동체계의 확장을 통해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박상옥,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 이론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확장학습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확장학습이론은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 연구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학습에 관한 연구를 넘어서 공동체 또는 집단이 성장하는 집단 학습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즉, 확장학습이론 틀을 이용하여 공동체가 자신의 활동체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집단 학습의 과정과 역동을 보여주고 있다(윤창국·박상옥, 2012).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제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인문교양 분야의 수필창작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습자와 교수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제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대학 문화와 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을 갖추고 있다. 현재 평생교원에서는 일반교육과정, 공개강좌, 특별교육과정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습자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특히, 수필창작교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동기는 개인적인 학습에 대한 욕구의 성취를 주된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구성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필집 발간, 수필문학 축제, 수필문학기행 등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이 꾸준히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표 III-1>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나이	직업	비고
학습자 A	여	48세	자영업	
학습자 B	여	56세	주부	
학습자 C	여	70세	-	전직 교사
학습자 D	여	70세	-	전직 농업인
교수자 A	남	66세	명예교수	전직 교수

연구 참여자로는 수필창작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가로 등단한 학습자들과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를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다.

가. 성인 학습자

성인 학습자들은 사회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의 변화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구조적 영향 혹은 개인에게 놓인 생활 세계의 맥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 4명은 모두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왔으며, 공식 문학계에 등단한 수필작가로 각기 다른 삶의 맥락에 놓여 있다.

학습자 A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학원장이자 수학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이다. 한 가정 안에서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이며 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학습자 A의 전공은 '수학'이지만 평소에도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독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도내의 한 공모전에서 자신이 쓴 독후감이 수상한 것을 계기로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수필창작교실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 학기 참여하고 있다.

학습자 B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기자, 글쓰기, 사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한 경험은 없었다. 결혼 이후, 한 가정에서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집안일을 도맡았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과거에 접어두었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2009년에 교육원 홍보물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이후부터 자녀들의 응원을 받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습자 C은 과학교과를 전공한 전직 중등교사였다. 교직에 있을 때 담당했

던 업무 중 학내의 교지를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선배교사인 국어 과목의 교사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게 되었고, 그 이후 깊은 관계를 맺은 선배교사로부터 수필창작교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은퇴한 이후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2008년부터 수필창작교실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습자 D는 과거에 농업관련 일을 하다가 은퇴하였다. 그동안 특별한 취미 활동을 즐기지 않았던 터라, 은퇴이후 늘어난 여가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본래는 ‘심리상담자격증’ 과정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이미 프로그램 신청자가 많아 등록이 불가능했다. 처음에 원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평생교육원의 직원이 추천으로 수필창작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학습자 4명은 학원장, 주부, 은퇴한 교사, 퇴직자 등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인학습자들이 삶의 맥락과 환경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고하며 미뤘던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신에게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낼 취미활동으로, 별도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시작으로 각기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나. 교수자

1998년에 수필창작교실이란 이름으로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교수자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교수자 A는 ‘수필창작교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6년 2월까지 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었다. 교수자 A는 대학에서는 소설론, 문학론 등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역할,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문학평론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기에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인학습자와 함께하는 교수자의 역할을 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수자 A는 ‘교수자’라는 이름으로 대학과 평생교육원이라는 학습공간을 오가며 대학생과 성인학습자

들을 만났고, 때로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해왔다. 교수자 A는 각기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안에 ‘문학’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자료수집

연구자는 ‘수필창작교실’ 학습자 및 교수자와의 심층 면담과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가.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비공식 면담은 수시로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학습하는 공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시로 학습자들과 교수자와의 접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심층 면담에 앞서 수시로 비공식 면담을 수행하면서 수필창작교실 참여자들의 맥락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5년 8월 이후 진행된 다양한 행사(문학인의 밤, 수필집발간 스터디, 수필축제 등)에 참여하면서 비공식적인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가장 많은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100여명에 이르는 구성원을 모두를 대상으로 면담하지는 않았다. “질적 연구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주제보자에게 의존하는데, 이때 주제보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된다”(Fetterman, 1998: 47-48을 박상옥 2009:229에서 재인용). 심층 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활동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교수자에게 추천을 받았고, 추천받은 자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심층 면담은 개인면담의 형식으로 1회에 약 40~6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심

층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 참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양해를 구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심층 면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모두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후 문자화하였다. 학습자 4인은 각 1회씩 심층 면담을 진행했으며, 교수자는 2회에 걸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비공식 면담은 연구자가 근무지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수필창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때, 비공식 면담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주로 질문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지만,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주로 연구자가 문서자료를 분석하며 의문이 생긴 부분이나 그들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점들을 이야기하며 심층 면담 이전의 질문들을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III-2> 면담 질문지 구성

구분	질문
학습자	① 개인의 상황적 맥락(직업, 가족관계 등) ② 수필창작교실 참여 이전의 학습(기간, 내용, 목적 등) ③ 수필창작교실 참여 동기 ④ 수필창작교실 학습내용, 활동내용, 활동참여의 위기 ⑤ 수필창작교실 지속적 참여의 요인과 참여 후 변화 ⑥ 향후 활동계획
교수자	① 개인의 상황적 맥락(직업, 활동 분야 등) ② 수필창작교실 개설 동기, 목적 등 ③ 수필창작교실 수업내용, 수업방법 ④ 수필창작교실 학습자와의 관계 ⑤ 수필창작교실 관련 다양한 활동의 의도 ⑥ 수필창작교실 참여 후 변화 ⑦ 수필창작교실 향후 활동계획, 지향점

참여자 대상의 질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적사

항에 대한 것으로 학습경험,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등이고, 두 번째 수필창작교실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글쓰기관련 학습활동, 활동참여 여부, 아쉽거나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 활동을 통한 삶의 변화 등을 물었다. 마지막 부분은 향후 활동계획, 목표 등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나. 문서자료 수집

문서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면담 또는 참여관찰이 지닌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서자료를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와 함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수집한 문서자료는 온라인 인터넷 카페 ‘백록수필문학회(<http://cage.daum.net/wdessay>)’와 신문기사, 1999년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백록수필집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한 문서자료는 수필창작교실을 이해하고 개인의 경험과 사고가 드러나는 수필작품들을 통해 참여자들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글들을 보면서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었다.

‘수필창작교실’과 관련된 문서자료와 온라인카페를 통해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시로 대면하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며 활동하는 모습을 파악하며 면담에 활용할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료를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와 문서자료를 수집했다. 문서자료는 보조적인 역할로 심층 면담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들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이 작성한 수필작품은 그들

의 맥락을 이해하고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의 주된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녹음한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며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때, 심층 면담을 할 때 간단히 메모한 내용을 참고하며, 녹음된 자료의 연구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어 가면서 질문지의 구성에 따라 1차적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이후 원자료에서 연구문제에 부합하는 핵심 단어들과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분류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를 활용하여 주제를 선별하고 만들어진 분류체계를 연구의 소제목으로 활용하여 원자료에 담긴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을 확장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수필창작 교실 참여자의 확장, 확장 과정에서 겪는 모순, 그리고 확장적 전환 등을 분석했다.

IV.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

1. 프로그램의 맥락: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수필창작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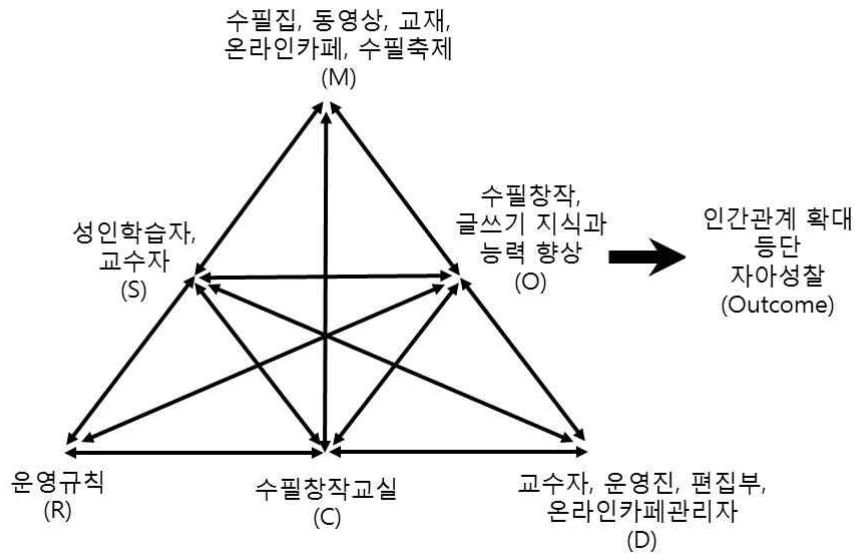
제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은 1998년 4월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교육과정, 공개강좌, 특별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교육과정은 직업준비·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생활스포츠, 인문·교양 4개의 분야를 학기별로 운영되는 단기프로그램이다. 1년에 1학기(15주), 여름계절학기(8주), 2학기(15주)로 나누어 운영되며 매 학기마다 각각 수강신청을 받는다. 공개강좌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1년(30주)과정으로 현재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민경제대학과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제주향교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유학대학이 있다. 특별교육과정은 특수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전문가 양성과정,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교육과정은 매 학기별로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하는데, 이때 접수된 프로그램을 수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기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다.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강신청을 받는데 한 프로그램 당 10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할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도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다.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자연히 폐강의 수순을 밟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원의 운영 특성상 한 교수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매 학기에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자가 관찰한 ‘수필창작교실’은 평생교육원의 인문·교양프로그램의 하나로

1998년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계속해서 개설되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해의 참여자들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필작품들을 모아서 ‘백록수필집’을 창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필창작교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백록수필문학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는 ‘수필창작교실’의 과거 참여자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필창작교실’과 ‘백록수필문학회’ 두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지만, ‘수필창작교실’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참여자들은 함께 학습한다. 이는 ‘수필작품’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백록수필문학회’라는 또 다른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필창작교실’은 초창기의 선배 참여자들부터 현재의 참여자들까지 한데 모여 활동하며 기존에 쌓아온 그들의 문화와 학습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1] 수필창작교실의 활동체계

위의 [그림 IV-1]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인 교수자 A와 성인학습자(주체)는 수필창작(객체)을 위해 기존의 수필집, 동영상, 인문학도서, 교재 등(매개물)을

이용하여, 함께 수업을 받는 사람들(공동체)과 함께 평생교육원에 정해진 프로그램 운영규칙(규칙)에 따라 교수자, 학습자 및 관리자(분업)와 ‘수필창작교실’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활동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2. 학습자의 확장학습

참여자들에게 있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글쓰기와 문학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 간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각각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곳에 방점을 두고 시작했다. 평생교육원의 다른 프로그램을 희망했던 학습자 D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갔고, 학습자 A은 학습내용을 자신의 삶 안으로 끌어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반 사람들은 이젠 막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지.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다보면, 한계점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계속해서 교수님과 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다보면 재밌지.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

(학습자 D, 2016년 9월 30일 인터뷰 중)

이제 저는 오는 날만 기다려지고. 저는 목요일에 강의를 듣는데, 일주일의 시작이 저는 목요일인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강의를 듣다보면 교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그 강의를 통해서 내 생활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들한테 큰소리 치고 강의를 받는데 교수님이 강연 중에 ‘이 세상에 자랑 인연을 맺기 위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씀을 하면 ‘아,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나한테 왔는데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내가 이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다니다보니 7년 다녀요.

(학습자 A, 2016년 10월 2일 인터뷰 중)

또한, 교수학습 경험이 많은 교수자 A도 학습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든 학습자, 퇴직한 사람들 등 학습자 개인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피며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고민하며 학습자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원래 내 직업이 가르치는 교육자니까 인격을 존중하고, 또 나이든 사람들이니깐 늘 존칭을 하고, 살피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점심을 같이 먹거나 차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살피는 게 많죠. 그래서 관계의 폭도 많이 넓어 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든 학생들이고, 세상을 살만큼 산 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더 깊어져요.

(교수자 A, 2016년 11월 10일 인터뷰 중)

수필창작교실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배정된 학습활동 시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관계를 지속했다. 수필집 발간, 수필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며 서로 다른 맥락에 놓인 참여자들은 수필창작교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공유하는 수필과 글쓰기라는 학습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해 나갔다.

가.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 : ‘나 그리고 우리 수필 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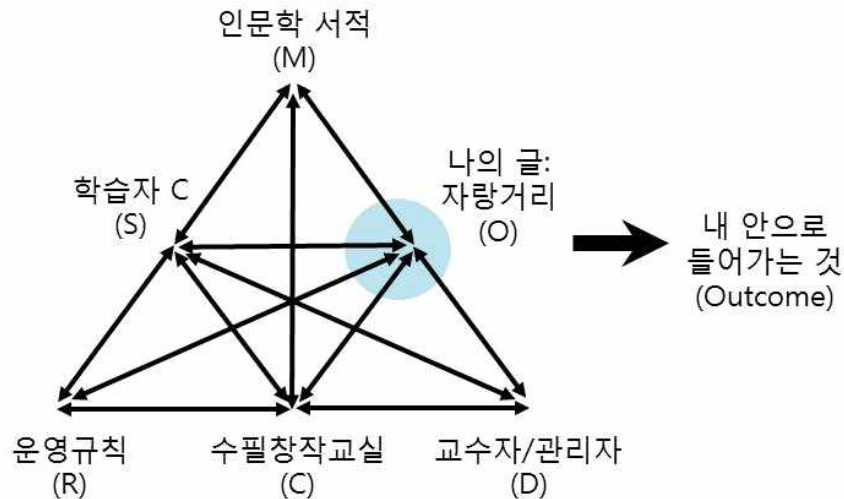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40대부터 80대의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각각 분포하고 있다. 1년 3학기제로 학기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매 학기별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각각 다르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농업인, 교사, 대학교수, 학원운영자, 은퇴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과 생활세계가 서로 다른 데에서 오는 경험을 통해 각자의 삶을 형성해왔다. 이와 같이 서로 다양한 개인적 맥락과 경험을 가진 성인학습자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수필창작교실’이라는 활동체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공통된 집단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활동체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내의 활동이 지속하는 동안 또 다른 다양한 모순들이 발생하며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나를 밝히고 싶은, 쉬운 말로 하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자기자랑에 대한 글들…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자랑할 게 있는데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인문학 책도 읽고…(중략)…인문학을 읽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 글을 또 보면, 이런 걸 쓰면 또 자랑이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처음에 뭇 모르고 쓸 때는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글을 쓰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의 바람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학습자 C, 2016년 10월2일 인터뷰 중)

참여자는 자신의 활동을 양적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서적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참여자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수준의 모순, 곧 인문학 정신과 자신의 종래의 가치관 사이의 모순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림 IV-2] 학습자 C의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

학습자 C는 활동에서 인식하게 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성찰하고 실천하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관계에서 학습을 경험함으로써 그

의미를 산출하고 있었다. 곧 주체와 매체(인문학 서적) 간의 모순에 직면하여 객체(자신의 글)의 의미를 ‘자랑거리’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참여자들의 활동체계는 일상생활과 학습하는 내용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구조 사이에서 여러 모순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활동체계로 전환·확장하고 있었다.

수필이라는 인문학의 요소가 진한 교과목의 특성상 학습내용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적 행동으로 실행하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활동체계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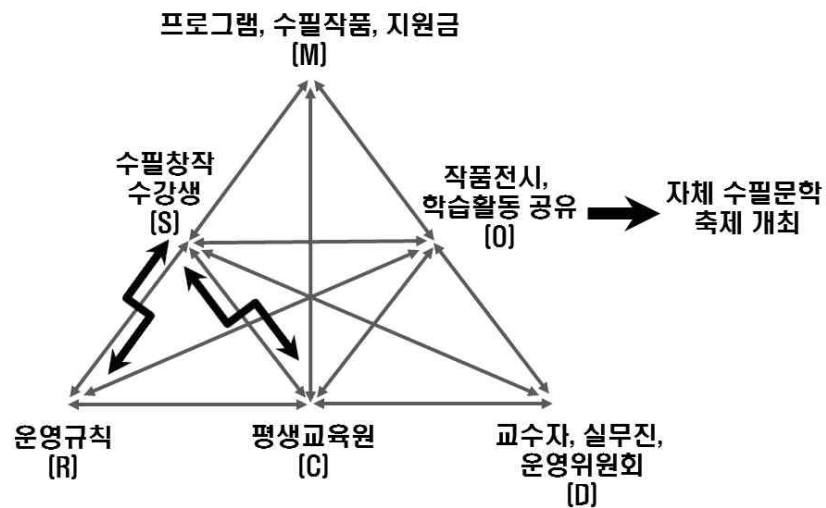
수업에서 단순하게 어떤 작법을 가르쳐주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학 강의를 하면서 철학을 같이 해요.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받았죠. 받다보니, 이게 제가 글을 쓴 건 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교수님 강의가 좋으니깐 가봐야지 이려고 다녔어요. 저는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신세계 인거죠.

(학습자 A, 2016년 10월 2일 인터뷰 중)

참여자들은 개인의 내적 갈등 혹은 모순들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도구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나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모순을 함께 성찰하고, 공유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또래 모임이나 동아리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기단계에 자연스럽게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개인적 삶의 주체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집단 속의 주체로 위치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활동체계 속에서 또 하나의 활동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학습자 집단의 활동체계 내부에서 모순에 따라 확장학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자발적 참여로 시작한 수필창작교실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내부의 관계를 형성해가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수필창작교실 학

습자들의 활동체계 형성에 있어서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참여자들의 학습의 장을 열어 준 공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년 평생 학습축제를 열어 각 프로그램의 학습활동의 특성에 따라 전시회, 공연, 대회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학습자들의 학습내용과 그들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다. 이때, 수필창작교실 학습자들은 시화 전시를 기획하여 수필작품에 그림을 입혀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냈었다. 이 모든 과정을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동안 학습하면서 향상된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하기 위해서 수필을 집필했었다. 집필한 작품들을 책으로 엮어 내기 위해서 편집의 과정을 거치고 이것을 다시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내는 작업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엮어 전시회를 기획하고, 전시회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학습자들이 직접 진행했었다.



[그림 IV-3] 수필창작교실의 활동체계 내의 모순

그러나 2015년부터 교육원의 예산정책이 변경되면서 매년 이루어지던 평생 학습축제가 없어졌다. 이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원의 축제를 통해 학습문화를 공유하고, 축제를 위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학습활동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활동체계에
서 주체와 공동체(평생교육원) 또는 주체와 규칙(평생교육원의 운영규칙) 사이
에서 모순이 발생했을 때 주체(수필창작 학습자)들은 모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평생교육원에서는 매년 하던 평생교육 축제와 같은 공식적 행사가 없
어졌어요. 내가 원장일 때는 학교 대강당과 신관(학생회관)에서 했었는
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주시 산하에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하려면 해라'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생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
자. 그렇게 꾸리면서 '수필문학축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도민
대상으로 우리가 응모전도 하잖아요.

(교수자 A, 2016년 10월 12일 1차인터뷰 중)

평생교육원의 평생학습축제는 사라졌지만, 그들만의 축제를 만들어 나갔다.
우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 측에
일부의 경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내의 또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공모사업
에 선정되어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됐나요?

교수자 A: 그건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서 응모에 뽑혔어요. 공모전에 선
정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책을 만들게 되면 보통 13만~15만원씩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요. 그게 지금 어렵죠. 왜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어
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때
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데,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어쩔
수가 없죠.

(교수자 A, 2016년 10월 12일 인터뷰 중)

이처럼 학습자들은 모순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
여 '수필문학축제'라는 새로운 활동의 장을 스스로 꾸려나가게 된 것이다. 이들
이 적극적으로 공동의 활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개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시작한 프로그램에서 함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공동체라는 의식 안에서 수필창작교실 동료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참여자들은 적극적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나. 활동체계 간 모순에 따른 확장 : ‘우주의 하나뿐인 우리’

참여자들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활동체계와 새롭게 진입한 활동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따라 확장학습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나온 삶의 자취를 반추해볼 수 있고, 주어진 삶의 시간을 예비함으로써 본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학습자 A는 프로그램 참여 전부터 이미 학원을 공동체로 이루는 하나의 활동체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 A는 수학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이자 학원장(주체)으로 교육과정(매개체)을 통해 학원생들(객체)의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나갔다. 한편, 학습자 A가 ‘수필창작교실(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수필집, 동영상 등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글쓰기 실력 향상과 수필창작(객체)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여기에서 처음 학습자 A가 계획했었던 교육의 목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아성찰의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글 쓰는 걸 배워주는구나 그러고 왔는데, 첫날 봤더니 글 쓰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문학 강의였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너무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작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학 강의를 하면서 철학을 같이 겸비해서 가르쳐주니까 저는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받았죠. 받다보니, 이게 제가 쓴 건 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그냥 교수님 강의를 좋으니깐 가봐야지 이랬어요. 신세계인거죠(중략).

저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데 꼭 어디 스님한테서 귀한 말씀 듣거나, 천주교에 가면 신부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습자 A, 2016년 10월 2일 인터뷰 중에서)

이처럼 학습자 A는 ‘수필창작교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와 삶을 성찰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갔다. 특히, 두 활동체계 즉, 학원공동체와 수필창작교실의 활동체계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서로 상반된 성격의 활동체계 간의 모순을 겪게 된다. 기존의 활동체계에서 객체(수학교육, 수익)는 새롭게 시작한 활동체계의 객체(수필, 인문학, 자아성찰)와 사고방식 및 가치관과 학문적으로 서로 극과 극이었다. 이때, 두 객체들 간에 발생한 모순사이에서 학습자 A는 차츰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인문학적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수필을 시작하다 보니깐 마음은 좀 비워지더라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고,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면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아주. 180도로(...중략).

근데 수필을 공부하면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 내가 왜 때려’, ‘돈 주고 나한테 온 아이, 매 맞으려고 여기 온건 아닌데...’. 매를 때리면 효과를 빨리 보지만, 이제 매를 안 때리고 말로 하게 된 거죠. 계속 애를 설득하죠(...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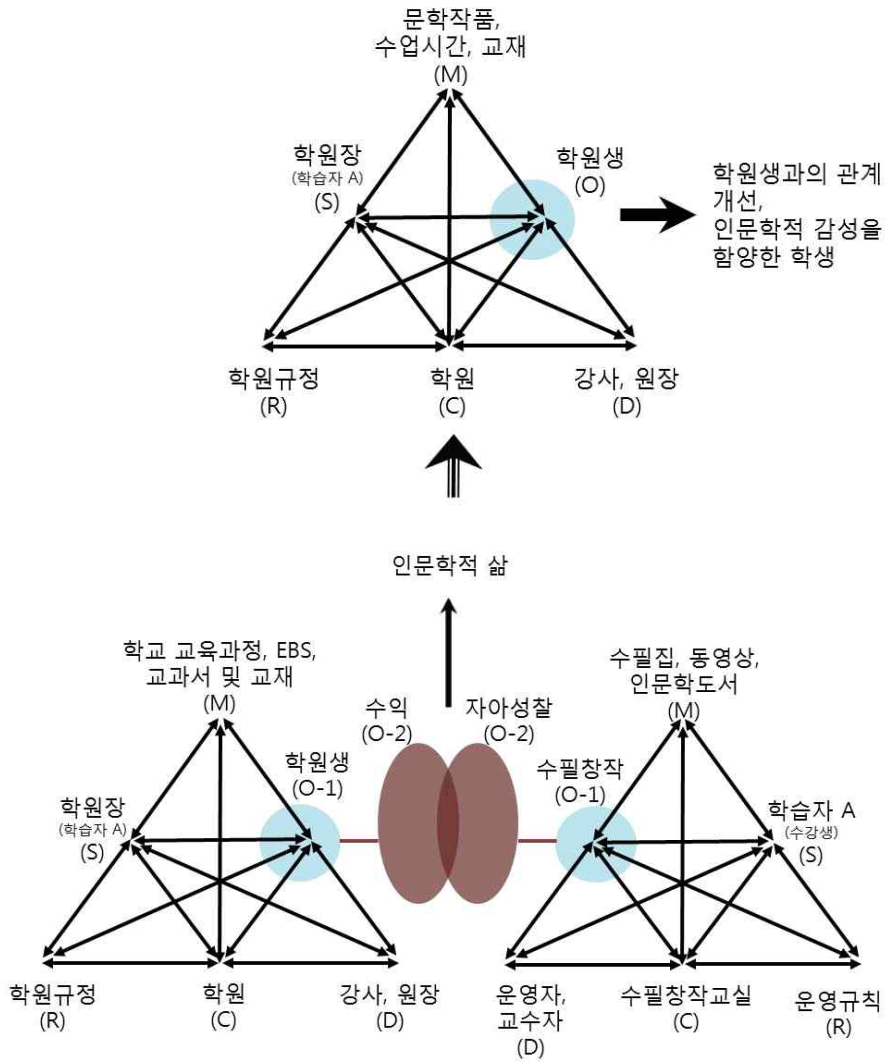
저는 제가 배운 시들을 학원 칠판에 써 뒀어요. 그럼 애들은 ‘저거 뭐, 뭐’하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래도 제 의도는 일주일 내내 저걸 써 놓으면, 한 번이라도 저걸 보겠지. 그러면 애들 마음에도 시심(詩心)이 생기겠지. 그리고 어떨 땐 의도적으로 읊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또 몇 마디 좀 해주고(...중략).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씀, 애들한테 가서 적용도 하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달라 보여요. 지들도 선생님이 따뜻하다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 무서워했는데...

(학습자 A, 2016년 10월 2일 인터뷰 중에서)

결과적으로, 학습자 A는 두 활동체계 간에 발생하는 모순을 인문학적 삶의 추구로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면서 학원공동체로 형성된 활동체계에서 객체인 학원생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자신과 마주하는 학원생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활동체계의 객체에 대한 또 다른 활

등을 더하며 그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활동체계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4] 학습자 A의 활동체계의 확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활동체계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자아를 재구성 하였다.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일상과 학습이라는 조각을 자율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맞춰가면서 삶과 학습에 있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인학습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은 새로운 활동체계의 형성된 이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활동과 또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활동체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활동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에 자신이 속한 활동체계와 타인의 활동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따라 확장학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활동체계에서 발견되는 모순은 하나의 활동체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 다른 활동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활동체계를 형성하고 그 체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모순은 주체인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고, 그들의 활동체계가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여러 개의 활동체계들은 서로 영향을 나눔으로써 주체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새롭고 능동적인 주체들이 모임으로써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행동이 실천하는 활동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한 문화, 지식, 관계 등의 활동은 점차 확장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활동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관계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9년에 학습자 D는 심리관련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교육원에 방문했다가 교육원 직원의 추천으로 ‘수필창작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수필에 대한 학습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 활동을 수년째 이어오면서 작가로 등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 D가 ‘수필창작교실’을 처음에는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친교활동으로, 이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습자들 간 계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받아 작가로 등단하며 수필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작가 등단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필을 공부면서 학습자 D는 작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수양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되어 또 다른 분야로 넓혀나갔다. 이렇게 학습자4에게 ‘수필창작교실’에 대한 의미가 ‘친교활동 → 작가등단 → 새로운 교육(호스피스)’으로 확장되어가는 점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부를 하다보면, 한계점이 오기도 하지. 근데 또 계속해서 교수님과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다보면 재밌고.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등단을 못해서 그런 경우나, 집안 일 등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만두지만, 등단을 하면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서로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모임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 …(중략)… 나에게 주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사람들하고 인문학 책 읽은 얘기하고 공부하면서 수양,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니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학습자 D, 2016년 9월 30일 인터뷰 중)

목적은 달성한 활동체계는 참여자들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유지됨으로써 그들의 활동영역, 사고방식 등 참여자들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활동 초기의 목표가 자신의 삶의 변화,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도구에 대한 학습과 같은 목적적이고 개인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발전 또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와의 공존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관계로의 발전을 가져왔다.

참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과 사회가 요구하는 삶과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교육활동이라는 다른 활동체계로의 진입을 모색하였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습하면서 참여자는 새로운 활동체계의 각 구성요소 사이에서 다르고 다양한 모순의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진입한 활동체계의 주체로 자리하였으며, 깊은 자아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작가로 등단하여 활동을 하거나, 자아실현을 통해 또 다른 일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이 참여자는 교육활동 참여를 선택하였을 때 계획하였던 자신의 목적을 새로운 활동체계를 통해 달성하였다.

3. 교수자의 확장 학습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진 성인학습자와 교수자가 만나 교수-학습활동을 수행할 때 그 의미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프로그램 안에서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보아 마땅하다. 여기서는 프로그램 참여자인 교수자의 측면에서 새롭게 활동체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속해있던 활동체계와 새롭게 형성된 활동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가. 개인의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 학습 : ‘사제(師弟)에서 도반(道伴)으로 나아가기’

수필창작교실의 첫 시작은 교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상 공고를 통해 프로그램을 모집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학습내용과 방법 등은 교수자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는 학습의 진행 흐름에 따라 학습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조율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첫 시작은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됐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여러 해를 거쳐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에 운영된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보완점들을 파악하여 다음 학기에 반영하는 피드백과정이 더해진다.

사범대학의 교수였던 교수자 A는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자이자 동시에 평생교육원의 수필창작교실 수강생을 가르치는 교수자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성인학습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교수자로서 당혹감을 느꼈다. 성인학습자는 일반 대학생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학 강단에 오랫동안 서있던 교수자로서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성인학습자와 모순에 직면했다. 그 결과 교수자 A는 평생교육원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학습자

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교육활동에 반영해 나갔다. 교수자 A는 프로그램 안에서 성인학습자를 대할 때의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노하우와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하며 전문성을 쌓아갔다.

대학에서 대학생들만 놓고 하는 강의와 여기(평생교육원) 일반인들을 놓고 하는 강의는 또 달라요. 대학에서처럼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면서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이 들은 수업을 나오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오랫동안 하다 보니 잘 알게 되었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중략)...대학 강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존중하고 흥미도 유발시켜야 돼요. 여기 오는 분들은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잖아요. 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늘 정중한 모습으로 대하기 위해서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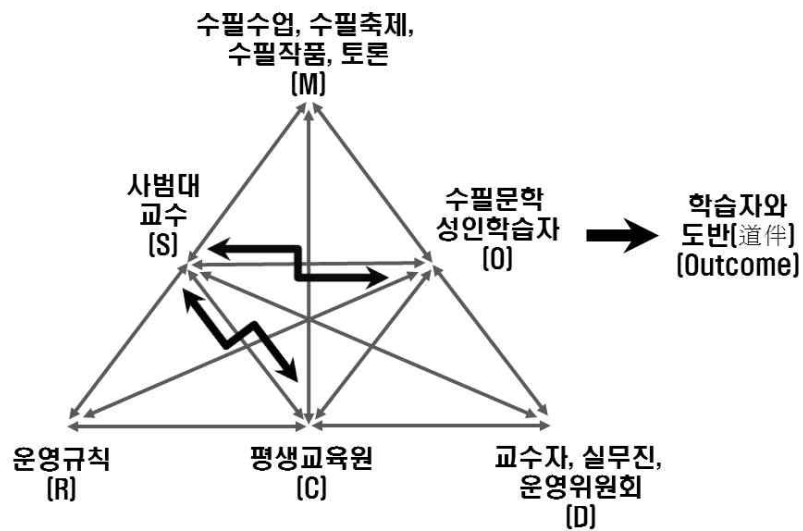
(교수자 A, 2016년 10월 12일 인터뷰 중)

평생교육원에서 교수자 A는 학습자와 두 번째 모순에 직면했다. 성인학습자가 단지 학습자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교수자 A를 가르치는 ‘하나의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수자 A는 성인학습자를 교수자의 수필창작을 돕는 지식 창조의 협력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수필창작교실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 즉 참여자들 간의 공적인 학습관계가 사적인 유대관계 발달로 관계가 깊어져갔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초기 학습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쌓아가며 전문수필가로 문학회에 등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수자 A는 학습자를 단순히 제자로,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문학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학문동지, 동반자로 인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솔직하고 인간적인 신뢰가 깊어요. 나는 평생교육원에 오면서 사람을 많이 얻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그래서 나는 선생과 제자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같은 도반(道伴)이다. 한 길을 가는, ‘수필을 같이 쓰거나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참 많죠. 보람도 있고...(중략)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함께 공부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수자 A, 2016년 11월 10일 인터뷰 중)

따라서 사범대학 교수는 평생교육원이라는 공동체로 들어와 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수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성인학습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되었고, 기존에 교수자 A가 갖고 있던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성인학습자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를 같은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동반(道伴)으로 관계를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그림 IV-5] 교수자 A의 활동체계 내의 모순

나. 개인의 활동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확장학습
: ‘도반(道伴)과 함께 창안한 시수필(詩隨筆)’

교수자 A는 사범대학 교수로,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교실 교수자로 자신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오는 가운데 ‘시수필’이란 새로운 수필영역을 개척했다.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펼쳤다. 사범대학이 갖는 교육목적에 따라서 향후 교사로 나아갈 대학생들이 교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인 전문성함양과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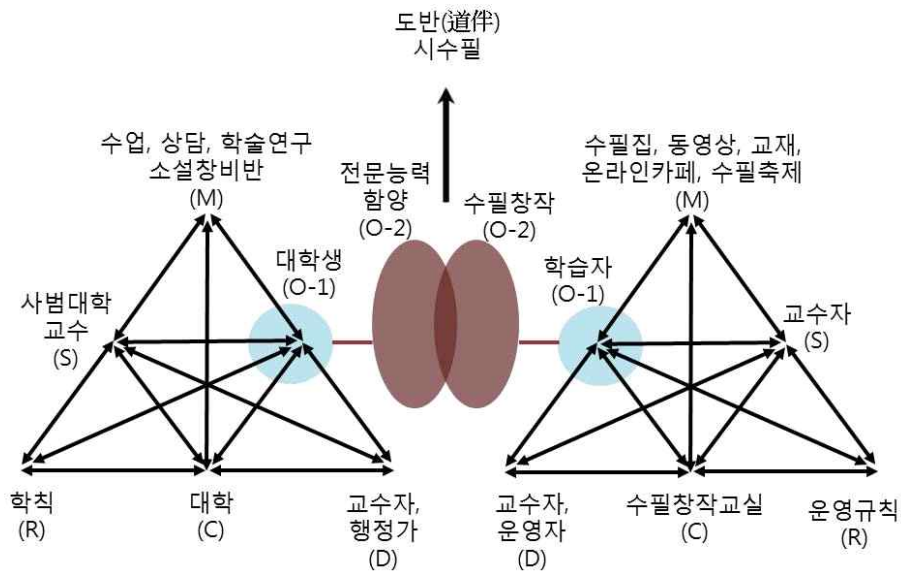
도록 지도했다. 교수자 A는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현대문학을 전공한 제자가 현장에서 현대문학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에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소설창비반(소설창작과 비평)’이라는 소규모 모임을 운영하였다. 이 모임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 현대소설을 분석하고 토론활동을 2시간 내외로 진행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야외학습을 통해 학생들 간의 친목관계를 도모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교수자 A는 대학이라는 활동체계 안에서도 주어진 틀이나 정해진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대학생의 학습의 장을 만들어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면서도 그들 사이의 선후배 간, 사제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활동했다.

대학에서 소설창비반을 개인적으로 운영했어요. 학과(국어교육과) 재학생들에게 희망자를 받아요. 한 달에 한두 번 토요일에 모여서 이상문학상 소설 중 원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공부한 것을 같이 분석을 하며 선후배가 함께 나누는 거죠. 현대소설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모르잖아요....(중략) 내 목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소설에 관한 한 선생이 무식해서 못 가르치는 일은 막자. 소설 분석 방법을 가르쳤죠. 그 방법을 적용해서 요즘 나오는 작품들과 연계시키면서 2시간 정도 학습하죠. ...(중략) 전공과 연계를 시키는 거죠.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학습하는 거죠. 방학에는 같이 수목원을 가거나 MT를 가서 소설토론도 하고 그랬죠.

(교수자 A, 2016년 11월 10일 인터뷰 중)

앞서 살펴본 교수자 A의 두 활동은 대학과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대학에서의 활동 안에서도 주어진 교육과정을 단순히 운영하는 점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실행해 나갔다. 또한, 평생교육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간적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두 공동체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교수자 A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연구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그 결과 수필의 산문정신과 시의 운문형식을 결합하여 ‘시수필’을 창안해 냈다. “시수필은 시의 난해함과 산문의 지루함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수필의 하위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렇

게 탄생한 ‘시수필’은 한 연구자의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과 성인학습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새롭게 학습할 또 하나의 학습활동 영역을 마련해주었다. 즉, [그림 IV-6]과 같이 활동체계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된 객체 2(대학생의 전문능력 함양, 성인학습자의 수필 창작)로 이동한다. 여기서 각각의 활동체계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공유된 객체(도반, 시수필)로 전환하였다.



[그림 IV-6] 교수자 A의 활동체계의 확장

지금까지 수필창작교실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수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체계들을 살펴보았다. 이 활동체계들은 하나의 틀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주체들은 참여를 통해 개개인의 목적에 맞게 학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하게거나, 더 나아가 학습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며 활동체계를 변화시켰다. 이때, 활동의 종류뿐만 아니라 활동체계의 모든 요소들은 참여자들과 또 다른 활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활동체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환되는 활동체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그룹의 학습을 분석할 수 있는 틀로

서 확장학습을 활용했다(박상옥, 2009).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확장학습 관점에서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확장학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앙게스트롬의 확장학습은 상호작용하는 활동체계들을 통해 모순과 긴장의 양상을 보여주고, 활동요소와 활동체계가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인 ‘수필창작교실’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확장학습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과 교수자 및 학습자의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활동에서의 활동체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크게는 성인학습자와 교수자로 기준으로 나누고 이들의 활동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면서 활동체계가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확장학습을 확인하였다.

첫째, 성인학습자 개인의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학습은 개인의 활동을 양적으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활동체계로 전환·확장해 나간다. 수필창작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습자는 종래의 가치관과 인문학 정신 사이의 모순이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의 다양한 관계에서 학습을 경험하며 새로운 의미를 산출하였다.

둘째, 학습자 집단의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학습은 내부의 관계를 형성해 가며 활동체계 내의 모순을 극복하고 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을 이어가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던 축제가 사라지면서 자신들의 학습활동과 작품을 공유할 기회가 소멸했지만 적극적인 활동 주체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활동을 구상해 나가며 마침내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평생교육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수필창작교실만의 자체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기획하면서 학습자 ‘개인’을 위한 수필에서, 수필창작교실 수강생 ‘우리들의 수필’에서 더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수필’로 나아가며 그들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자 자신의 활동체계 간 모순에 따른 확장학습은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활동체계를 형성하면서 이미 지니고 있는 기존의 활동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로 확장학습이 일어난다. 이때 변화의 과정은 새로운 활동체계가 형성된 이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활동체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학습자 자신과 타인의 활동체계 간 모순에 따른 확장학습은 활동체계에서 발견되는 모순은 하나의 활동체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 다른 활동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활동체계를 형성하고 그 체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새롭고 능동적인 주체들이 모임으로써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행동을 실천하는 활동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한 문화, 지식, 관계 등의 활동은 점차 확장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활동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관계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교수자 개인의 활동체계 내부 모순에 따른 확장학습은 ‘수필창작교실’의 강의를 시작한 교수자 A가 사범대학 교수로 대학 강단에 오랫동안 서있던 교수자로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성인 학습자와 모순에 직면했다. 그 결과 교수자 A는 평생교육원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교수자 A는 프로그램 안에서 성인학습자를 대할 때의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노하우와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하며 전문성을 쌓아갔다.

여섯째, 교수자의 확장학습은 개인의 활동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확장학습으로 교수자 A는 사범대학과 평생교육원 두 활동체계에서 각기 다른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관계를 동반(道伴)으로, 새로운 연구 과제를 탐색하며 ‘시수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고안해냈다. 이처럼 변화과정에서 받

생한 모순을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활동을 생산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활동 대한 계량적·심리학적 접근으로 세부 주제로는 학습자의 참여동기(정은희; 2014), 참여 지속 요인(이숙원; 2002, 남기영; 2016), 학습성과(김애련; 2004, 신은정; 2012), 자기주도학습(이정희외; 2007), 학업적 효능감(안주영 외; 2014, 박지현 2015), 프로그램 평가(이규영 외; 2004) 등을 수량화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학교육, 음악교육, 건강관리프로그램 등과 같이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는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수정 2011, 김현숙 2002, 설동희 2014)로 각 교육기관별 프로그램의 현황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화된 결과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의 활동으로 $1+1=2$ 와 같은 공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교육을 이루고 있는 환경과 각각의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질적 접근 시도로 학습 과정과 그 결과를 단순한 기술의 습득, 기능의 향상 등과 같은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활동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교육의 의미를 폭 넓게 담아낼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성인학습이론이었던 자기주도학습, 경험학습, 관점전환학습 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학습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학습이 지닌 집단적, 공동체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박상욱, 2009; 앵게스트롬, 1987). 배영주(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인간을 외부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며, 주체를 개인으로 상정한다. 이로 인해 자기주도학습 이론에서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주어진 학습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학습의 활동에 한정된다. 이것은 여전히 수동적인 학습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전통적인 학습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학습과정에 대한 확장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교수자나 교육기관 등에 의하여 설정된 학습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습득하는 방법적이고 제한된 범위로 학습을 한정하지 않았다. 교육활동의 두 주체인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활동과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으로 그들이 직면하는 모순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변화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학습자만이 아니라 교수자도 학습활동의 참여자로 보았다. 교수자의 측면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점차 변화되어가는 교수자의 성장 과정을 밝혔다. 그동안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지만, 교수자에 대한 연구는 효과적인 교수법 및 성인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신나민; 2004)만 진행되었을 뿐, 교수자의 활동을 한 개인의 학습과정으로 이해하여 학습자와 같은 변화와 성장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안에서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동을 통해 교수자의 활동체계와 그 안에서의 모순을 통한 변화와 성장과정을 밝힌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확장학습이론은 학습주체와 관련하여 개인보다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를 더 강조하고, 학습목적과 관련하여 문화를 전환하고 창출하는 데 중심을 두는 특성이 있다. 학습결과와 관련하여 확장학습이론은 평생학습의 결과 수평적 차원에서의 융합과 확장을 강조한다. 또한, 학습내용 및 과정과 관련하여 확장학습이론은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데 중심을 둔다. 확장학습이론은 습득에 초점을 둔 습득학습이론이나 참여를 중시하는 상황학습이론과 달리 모순적 활동체계를 확장적으로 전환시키는 확장학습을 강조한다. 확장학습이론에서 학습자는 확장학습 활동을 통해 기존의 실천 행위나 활동 체제를 전환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배운다(김경희 2011).

2. 결론

활동이론은 문화·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집단의 활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학습의 집단적 속성을 강조하고, 학습의 집단적 속성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윤창국, 2009).

본 연구는 활동이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이론으로 발전된 앵게스트롬의 확장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의 수필창작교실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의 활동체계의 모순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확장학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양한 개인적 맥락과 경험을 가진 성인학습자들은 수필창작교실이라는 활동체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공통된 집단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후 참여자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학습, 집필활동, 전시회, 전문작가로의 활동 등과 같은 또 다른 활동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내적 모순들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도구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나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모순을 함께 성찰하고, 공유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개인적 삶의 주체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집단 속의 주체로 위치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활동체계 속에서 또 하나의 활동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이후 학습 결과 활용을 통한 실생활의 참여’라는 일반적이고 정적인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다. 하지만,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준의 모순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활동체계에서 또 다른 활동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과 사회가 요구하는 삶과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다른 활동체계로의 진입을 모색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습하면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활동체계의 각 구성요소 사이에서 다르고 다양한 모순의 갈등을 겪었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진입한 활동체계의 주체로 자리하였으며,

깊은 자아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작가로 등단하여 활동을 하거나, 자아실현을 통해 또 다른 분야의 개척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교육활동의 참여를 선택하였을 때 계획하였던 자신의 목적을 새로운 활동체계를 통해 달성하였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활동체계는 참여자들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유지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활동 초기의 목표가 자신의 삶의 변화,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도구에 대한 학습과 같은 목적적이고 개인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발전 또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와의 공존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관계로의 발전을 가져왔다.

어떤 이론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장학습이론은 지금까지의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들과는 다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학습의 양상들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별도로 존재하는 개인의 심리적 변화가 아닌 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윤창국·박상옥, 2012).

뚜렷한 교육적 목적을 지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참여자들이 학습 공간을 주어진 제도와 틀에 한정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상세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점, 일상 안에서의 학습을 국가나 자본과 같은 외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자를 통해 활동의 결과로 교육의 효과를 학습자로 한정하지 않고 교수자로 확대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탐색한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곽삼근·박현옥·김현주(2014).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 분석-1982~2012년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66-92.
- 권인탁(2008).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활용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전략. **평생교육학연구**, 14(2), 1-29.
- 교육부(2013a).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3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2013). 제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서울: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
- 김경희(2011). 지식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이론의 지향점; 앙스트롬의 확장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8(4), 293-321.
- 김민호(2014). 지역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시민학습성: 밀양 송전탑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례. **평생교육학연구**, 20(4), 1-30.
- _____(2015). '학습의 일상성' 구형: 장애요인과 기본원칙. **평생학습사회**, 11(1), 1-26.
- _____(2016). 평생학습을 이루고 있는 축들의 정체성과 균형. 평생학습아카이브와. <http://www.wasuwon.net>.
- 김민호·문현식·양연숙(2016). 제주해녀의 확장학습 : 전통적 지식과 근대적 지식의 조우. 2016년 한국평생교육학회 50주년 기념 및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10.21. 중앙대학교.
- 김은순(2011).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체제 개선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김종선(2013). 시민참여 실천조직의 확장학습 과정연구: 남양주시 평생학습매니저의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김지자·정지웅(2001) 경험학습의 개념 및 이론과 발전방향. **평생교육학연구**, 7(1), 1-18.
- 김애련(2004).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현숙(200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

- 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효경·윤창국(2014). 확장학습을 통한 노인학습자의 활동체계 변화과정과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20(2), 1-33.
- 남기영(2016). 대학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요인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박상옥(2009). 지역사회 실천조직으로서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과정 - 부친 생태안내자 모임 ‘청미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5(1), 225-259.
- 박지현(2015). 평생학습중심대학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자기효능감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545-567.
- 배영주(2003). 성인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2011).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서울; 하우동설.
- 설동희(2014).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문학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신은정(2012).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신나민(2004). 효과적인 성인지도를 위한 실천적 전략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관점에서. **평생교육학연구**, 10(2) 1-23.
- 신정은(2014). ‘관저품앗이공동체’의 확장학습 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안주영·권인탁·임영희(2004). 대학평생교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 학업적 효능감 및 학업 행복감의 구조관계에서 교육서비스 질 인식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0(4), 165-192.
- 양은아(2009). 성인 인문학습과정에 나타난 삶과 학습의 선순환적 경험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윤창국(2009).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정의 장애요인과 학습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2(1). 31-66.

- 윤창국·박상옥(201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이론적 발전과 평생교육연구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18(3), 113-139.
- 이규영(200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평가 도구 개발. **평생교육학연구**, 10(1), 43-76.
- 이숙원(2002).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 결정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정희·윤명희·윤소정(2007). 성인 학습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접근방식 차이. **한국성인교육학회**, 10(4), 125-149).
- 이지혜·홍숙희(2002). 학습동아리활동에 나타난 학습역동 : 성인여성학습동아리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8(1), 177-200.
- 이진희(2016).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에 교육기관 경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정민승(2010). 성인학습의 이해. 서울: (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정은희(2014). 성인중기 학습자의 생활경험이 학습참여동기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조혜정(2010). 대학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지역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채재은·한승희(2015).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 분석, **한국평생교육학회**, 11(4), 1-24.
- 최돈민(2008). 지역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 **교육종합연구**, 6(2), 89-111.
- _____(1999). 대학 사회교육의 기원과 역할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 26(1), 357-384.
- 한수정(201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성인음악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호남권 대학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연구**, 9(2), 95-116.
- 한승희(2015). 포괄적 고등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 분석. 교육부.
- Creswell, J. W. 조흥식 역(201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Engeström, Y. (1987). *Learning by expanding: An activity-theoretical approach to developmental research*. Helsinki: Orienta-Konsultit.
- _____ (1996). *Developmental work research as educational research: Looking ten years back and into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Nordisk Pedagogik*, 16(3), 131-143.
- _____ (2000). Activity theor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knowledge: a story of four umpires. *Organization*. 7(2), 301-310.
- _____ (2001). Expansive learning at work: toward an activity theoretical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14(1), 133-156.
- Merriam, S. B. (1998). 강운수 외 역 (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서울: 교우사

A B S T R A C T *

A Case Study of Expansive Learning of the Participants in Essay-writing Program at Jeju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Kang, Hyo Jeong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Lifelong learning takes place in specific contexts in life. It provides learners with environment and conditions that allow them to change their daily life and autonomous and self-directed learning paradigm based on which they can grow and dynamically interact with the social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d how former participants in a program offered by 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who had different personal contexts and motivations continued the learning process and discussed the meaning of learning and development into expansive learning, by conducting one-to-on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7.

in-depth interview with four subjects who have been continuously attending the essay writing class organized by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ansive learning process of participants in a program offered by 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ere, expansive learning refers to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activity elements and systems based on contradiction and tension of activity systems that interact with one another.

Adult learning theories including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tial learning, and transformative learning showed limitations in helping with understanding of the comprehensive perspective toward learning that takes place in daily life and collective attributes related to learning. Therefore, in this study, learning of adult learners and their teacher were examined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expansive learning theory and various learning patterns found in daily life.

The program participants, for the purpose of writing essays, used such media as published essays, videos, and books related to humanities to form a community, i.e. 'essay writing class,' with other people sharing the goal, which was divided into teacher, learners, and administrator according to a set of rules. While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experience various types of contradictions and tensions related to elements of a new activity system, and became the principal agents of the activity system as they searched for solutions to the relevant issue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brought out different results such as changing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through profound introspection, becoming a professional writer, or entering a new field through self-actualization. Through a new activity system, the participants achieved their goals they had when they chose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activities. By opting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activities, the participants.

This activity system became integrated into the lives of the participants, forming a relationship with their lifestyles that helped develop the initial goals of the participants from a personal and result-oriented goal such as changing their lives or learning new social and cultural tools to a more expanded one such as self-development or coexistence with the community.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met in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at has a clear set of educational goals, they did not limit themselves to the specified learning space and framework and, instead, expanded their learning activities in their daily lives. Furthermore, rather than relying on external forces for their learning activities, they resolved contradictions and changed the activity system on their own. This study was meaningful as it investigated significant changes within the interaction between and activities of adult learners and their teacher, instead of limiting the meaning of activities performed by participants in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to the participants only. their own ways.

keyword : Expansive Learning,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